

추모식사

권이혁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오늘은 古下 宋鎮禹선생님의 탄신 1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는 배철호 국가보훈처차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枉臨하시어 빛내 주고 계십니다. 先生님의 誕辰日에는 언제나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先生님을 追慕하고 崇仰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全南知事와 交通部長官을 지내신 바 있고 현재 우리記念事業會 理事로서 精誠을 다해주고 계신 金昶植 변호사께서 先生님의 略傳을 奉讀해 주셨습니다. 略傳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 번 先生님께서 걸어오신 발자취를 떠올려 보게 되며 도저히 남이 따를 수 없는 先生님의 高貴한 모습에 새삼 感動을 받게 되었습니다. 金長官께서 紹介 말씀이 계셨던 까닭에 蛇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先生님의 모습 중 몇 가지만을 回想해 보겠습니다.

日本 留學中에 하신 가지가지 일들, 27세의 젊은 나이에 中央學校 學監을 거쳐 校長으로 活躍하신 일, 앞장서서 3·1독립운동을 일으키신 일, 物産獎勵運動·文盲退治運動·民立大學設立運動 등을 끌어가시고 東亞日報의 총수로서 民族精神을 代辯·鼓吹하신 일, 解放直前に 4차에 걸쳐 總督府로부터 政權引受交渉을 받으셨으나 拒絶하셨던 일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解放이 되자 先生님께서 建國創業의 理念을 밝히시고 民族陣營을 이끌어 나가시는 한편 다시 東亞日報社長에 취임하시어 나라 세우기에 침식을 잊으셨던 일, 海外亡命志士들의 還國迎接에 精誠을 바치신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값진 歷史的 事實로 刻印되어 있습니다. 비록 暴徒의 凶彈으로 高邁한 55年 人生을 마감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先生의 偉大한 經世方略과 治世精神은 오늘 날에도 많은 인사들 사이에서 膾炙되고 있습니다.

先生님! 우리나라는 現在 대단히 混亂스러운 現實을 맞고 있습니다. 不幸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彈劾政局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保守陣營과 進歩陣營의 對峙는 계속되고 있는 狀況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國論의 分裂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뼈아프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4·15 總選을 통해서 우리들의 政治·社會 狀況도 急速한 變化를 맞이했습니다. 미니 與黨이던 열린우리당이 議席의 過半數를 차지하여 第1黨이 되었고 한나라당이 第 1 야당으로 밀려났으며 進歩政黨인 民主勞動黨이 院內에 진출하여 第 3黨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50年 歷史의 民主黨과 그 동안 正統保守를 표방해 오던 自由民主聯合이 超미니黨으로 黨勢가 줄어들었습니다.

世代交替 現象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16代에서는 60代이상 議員의 比率이 32.6%였는데 16.4%로 줄었고, 30·40代 의원은 28.6%에서 43.1%로 증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戰前世代가 물러가고 戰後世代가 들어섰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女性議員들의 進出이 눈부신가 하면 初選議員이 63%가 되어 커다란 물갈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變化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歷史는 歷史고 現實은 現實입니다. 이 現實도 머지않아 歷史의 일부로 되어가는 것임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들은 바람직한 歷史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많은 政治人들은 '相生의 政治,' '對話의 政治'를 主張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이러한 政治가 實現 되기를 國民들은 苦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우리들이 先生님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自然스럽고 當然한 理致라고 생각합니다.

保守이고 進歩이고 간에 急進性·極端性이 판을 친다면 相生의 政治나 對話의 政治가 고개를 들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들은 改革的 保守와 合理的 進歩를 要望합니다. 經濟와 民生을 最優先課題로 삼고 이의 解決을 渴望하고 있는 國民들의 마음이 바로 民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先生님의 語錄하나가 떠오릅니다. 日本留學中 韓日

合併에 衝激을 받아 自殺을 決心하시고 歸國하여 彷徨하시다가 새로운 決心을 하고 東京에 돌아가셔서 친구들에게 새로운 活動方向을 밝히신 대목입니다. "이제부터의 光復運動은 過去의 義舉觀念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째, 한 두사람 또는 한 두 단체의 광복운동이 아니라 全民族的인 集團運動이라야 할 것이고, 둘째 그 어떠한 部分을 통한 光復運動이 아니라 政治·經濟·産業·文化 등 各 部分이 併行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먼저 教育事業을 해야겠고, 産業을 일으켜야 하겠고, 동시에 金融機關과 新聞, 出版機關을 가져야 한다."

吟味할수록 이 말씀에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값진 方向을 提示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삶의 質을 向上하고 文化國家를 이룩해야 한다는 古下精神의 一端을 이 語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韓國外國語大學校 名譽教授인 鄭晉錫박사께서 '古下 宋鎮禹선생의 언론행동과 업적'이라는 주제로 追慕講演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獨特한 次元에서 보시는 鄭教授의 講演에 期待하는 바가 큼니다.

끝으로 지난번 生辰날 보고 올렸던 두 가지에 관하여 말씀 올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報告 올린 중 하나는 長孫인 서울法大 宋相現교수가 작년 2월 4일 뉴욕UN에서 실시된 選舉에서 國際刑事裁判所 초대 裁判官으로 選出된 事實이었습니다. 現在 宋교수는 國際刑事裁判所의 常任裁判官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눈부신 活躍을 계속하고 있다는 近況을 알려 올리는 바입니다. 재작년 7月 1日 設立된 이 國際司法機關은 宋교수를 裁判官으로 맞이하여 그야말로 世界의 司法과 平和를 위해 앞서 가고 있습니다. 戰爭犯罪·非人道的 犯罪·集團殺害犯罪 등 중대한 國際法을 違反한 犯人을 國際社會의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이 國際刑事裁判所는 宋교수 덕분으로 그 存在가 誇示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宋교수는 이 裁判所가 所在하고 있는 헤이그에서 生活하는 날이 많습시다마는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오늘 追慕會를 위해 며칠 前에 歸國해서 萬般의 準備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尊敬 받는 子孫이자 世界的 人物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둘째로 報告 드리고자 하는 것은 先生님의 生家を 復元하는 件입니다. 全南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에 소재한 先生님 生家を '潭陽 古下 宋鎮禹先生 史蹟地'로 지정하기 위하여 그 동안 金昶植 전 長官님과 宋相現 교수가 直接 現場을 訪問하고 關係 人事

들과도 交渉을 하셨는데 절차상 時間이 必要하여 多少 늦어지고 있다는 報告를 드립니다.

先生님, 先生님을 그리워하는 우리들은 어려울 때 일수록 古下精神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을 계속 돌봐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追慕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04. 5. 8.

紀念事業會 理事長 權彝赫 올림